



LG유플러스가 2일 오전 서울 용산 본사에서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VR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시간·장소 제약없이 즐긴다 5G 클라우드 VR게임 첫 선

LG U+, 세계 첫 5G기반 서비스
전국 유통매장에 체험존 설치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클라우드 가상현실(VR) 게임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롯데월드 내 인기 VR 게임 콘텐츠도 5G로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LG유플러스는 서울 용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VR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김준형 5G서비스추진 그룹장은 “5G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고객수용도를 점검하여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용량 데이터를 초저지연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VR 게임서비스를 통해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 5G만의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VR 게임은 VR 게임 실행을 위해 케이블 연결, 디바이스 설치 등 복잡한 과정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게임이 실행된다. 이 때문에 5G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 언제든 고사양의 VR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5G 클라우드 VR 게임은 고성능 PC와 케이블 등을 구매, 설치하지 않아도 무선 VR 헤드셋(HM

D)만으로 고사양의 6DoF 실감형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널슨에 따르면 세계 VR 시장은 2018년 36억 달러에서 2019년 62억 달러, 2022년에는 163억 달러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캐피털은 2020년 VR 시장 규모 300억 달러 가운데 VR 게임 비중을 40%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디지털 게임 플랫폼 스팀의 PC VR 게임 및 인기 VR 콘솔 게임 10여 종을 1차로 제공한다. 제공 게임은 아리조나션샤인, 카운터파이트, 사이렌토, 스페이스채널5, 인투더리듬, 모탈볼리츠 등이다.

이달부터는 서울 용산과 마곡사옥, 전국 90여 곳의 유통매장에 5G클라우드 VR 게임 체험존도 설치한다.

롯데월드와 카카오VX와도 제휴에 나서 내달까지 VR 게임을 2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휴로 향후 LG유플러스 이용자는 롯데월드 내 인기 콘텐츠인 ‘어크로스 다크’, ‘후렌치레볼루션’과 같은 콘텐츠를 VR로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롯데월드는 VR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어 LG유플러스의 5G 클라우드 VR 게임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쌍용차 베리 뉴 티볼리.

쌍용차 ‘베리 뉴 티볼리’ 출시 기념 이벤트

“운전 새내기, 면허취득 응원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운전 새내기들의 면허취득을 응원하는 베리 뉴 티볼리 출시 기념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더욱 강력하고 새로워진 ‘내 생애 첫 차(My 1st SUV)’ 베리 뉴 티볼리 출시 기념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370여 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시된다. 수강생 누구나 현장에서 지급되는 이벤트 응모권을 받아 QR코드를 통해 간단하게 응모할 수 있다.

오는 8월말까지 참가자들 중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5명) ▲설빙 팔방 수 교환권(50명) ▲베스킨라빈스 아이

스크림 교환권(1000명) 등 푸짐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추첨 결과는 오는 9월 9일 발표하고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해당 이벤트 참여 후 오는 9월까지 티볼리 신차를 구매(출고 기준)할 경우 10만원 특별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쌍용차는 베리 뉴 티볼리 출시와 함께 모델 문가비가 출연하는 신선하고 감각적인 영상의 TV 광고를 비롯해 티볼리의 주요 고객층을 고려한 마케팅 및 홍보활동으로 새로운 모델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회전카메라 첫 탑재 ‘갤럭시A80’ 글로벌 출시

“라이브 시대 최적화… Z세대 공략”

고동진 IM부문장 뉴스룸 기고
최고의 화면·카메라·배터리로
라이브 커뮤니케이션 극대화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선 최초로 회전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A80’을 글로벌 출시하며 ‘라이브 시대’를 강조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1일 삼성전자 글로벌 뉴스룸 기고문에서 “갤럭시A 시리즈는 최고의 화면,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배터리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라이브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셀피의 시대’에서 ‘라이브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Z세대는 공유하고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산다”고 밝혔다. 또한 “Z세대가 향후 10년간 스마트폰 수요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작년 9월 (갤럭시A를 강화하는) 모바일 전략의 변화를 발표했고, 1년이 지나지 않아 갤럭시A의 재탄생을 알리게 됐다”며 “갤럭시A는 필수 기능과 최신 기능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이 지난 4월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A 갤럭시 이벤트’에서 ‘갤럭시 A80’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을 아울러 초보 사용자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기능을 원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유럽, 중동, 동남아, 중남미를 중심으로 갤럭시A80을 출시한다.

4월 공개된 갤럭시A80은 현재까지 발표된 갤럭시A 제품군 중 가장 상위 모델로, 회전 카메라를 전·후면 활영 시 동일한 카메라를 사용하게 된다. 회

전 카메라는 셀카 모드로 전환시, 후면 상단이 위로 올라가면서 카메라 방향이 바뀌어 후면 카메라와 같이 4800만 화소에 3D 심도 촬영, 800만 초광각 촬영이 가능하다. 국내에선 출시하지 않는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하반기 5G를 지원하는 갤럭시A90을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 내달 7일 뉴욕서 ‘갤럭시노트10’ 공개

언팩행사 초청장 발송
S펜·카메라렌즈 강조

삼성전자가 다음 달 7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10’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7일 오후 4시(현지시간), 한국 시간 8일 오전 5시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언팩 행사 초청장을 29일 오전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에 발송했다. 공개 행사는 삼성전자 뉴스룸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초청장 이미지는 갤럭시노트의 S펜과 카메라 렌즈를 강조하고 있다. 갤럭시노트에 처음 적용되는 ‘인피니티-O



갤럭시노트10 언팩 초청장.

시S10 카메라 헤드가 우측 상단에 위치한 것과 달리 갤럭시노트10 카메라 헤드는 전면 중앙에 배치돼 디자인이 달라진다.

또한 갤럭시노트10은 6.4인치, 6.8인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상위 모델에 기존에 알려졌던 ‘프로’가 아닌 ‘플러스’ 명칭이 붙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는 일반 모델은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플러스 모델은 후면 쿼드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LTE, 5G 모델로 나뉘며 국내에는 5G 모델로만 출시된다.

갤럭시노트10은 8월 중순 사전 예약을 거쳐 같은 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일반 모델이 120만원대, 플러스 모델이 14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구서윤 기자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현대차, 비전 제시

‘2019 지속가능성 보고서’

현대자동차가 1일 지난 한 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19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대차 2019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펼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비전을 담은 것으로 올해로 17 번째 발간됐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변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가속성 향상

과 정보의 선명한 전달을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거진 섹션’과 ‘보고서 섹션’으로 구분해 발간하고 있다. 매거진 섹션은 핵심 이슈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현대차 비전·핵심가치 소개 ▲2018년 하이라이트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차는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회와의 꿈을 실현한다’는 경영철학과 함께 3대 핵심 키워드로 ▲무한책임 정신 ▲가능성의 실현 ▲인류애의 구현을 공유했다.

또 이번 보고서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성공적인 전

환을 위한 현대차의 노력과 성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018년 하이라이트에는 ▲수소차·태양광 에너지 차량 등을 소개하는 ‘친환경(GREEN)’ ▲홈투카·카투홈 등 연결의 기술로 일상을 바꾸는 ‘연결(CONNECT)’ ▲미국·동남아·유럽·호주 등 글로벌 지역에서의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는 ‘공유(SHARE)’ ▲미래 모빌리티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변화(CHANGE)’ 등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4가지 키워드를 통해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전환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자료제공 현대자동차